

기본료 폐지·단통법 개정... 소비자 '환영' 업계 '손사래'

문 대통령 '통신비 절감 정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공시설 와이파이 의무화

업계 반발...실천 난항 예상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통신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반론, 소비자들은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공약으로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8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놓았다.

'8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골자는 ▲ 기본료 폐지 ▲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 통신

비 인하 유도 ▲ 데이터 요금 체계 전환 ▲ 공공 와이파이 설치 ▲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가장 과격적인 정책은 통신 기본료 폐지다. 통신 기본료는 이동통신사가 통신망과 통신설비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명목으로, 가입자는 매달 1만1000원씩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통신망과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 기본료를 폐지해 사회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통신망과 설비 등 유지보수는 물론, 5G 설비투자 등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이동서비스 가입자 6000만명 중 1인당 통신요금에서 매달 1만1000원을 제외할 경우 한 달 6600억원이다. 연간 7조 92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통신 기본료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실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있는 셈이다. 통신업 입장에서는 신사업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 등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기에 한동안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 대통령은 단말기유동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책도 내놴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기해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의의다.

지원금 상한제도는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데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만큼 단통법 개정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향을 포함해 기업이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통신비 인하성과

와 계획항목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도 도입하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일 세 나라 간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드러났다.

한·중·일 간 로밍요금제를 폐지할 경우 3국 어디에서나 국내에서 사용하듯 부담없는 가격에 전화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니만큼 꽤 많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공약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부담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면서 일부 공약에 대한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아토피 원인은 방어 단백질 결핍”...완치법 개발 성큼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영국 연구팀에 의해 규명되면서 완치 방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뉴캐슬대학의 의사 피부과 전문의 니콜라스 박사는 피부세포 형성을 돕고 피부를 방어하는 핵심 기능을 지닌 단백질 필라그린(filaggrin) 결핍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근본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과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필라그린은 아토피성 피부염과 유사한 심상성 어린선(chenitosis vulgaris)과 강력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2006년 밝혀진 이후로 아토피성 피부염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돼 왔다.

심상성 어린선은 죽은 피부세포들이 물고기 비늘처럼 쌓이는 유전성 피부질환이다.

레이놀즈 박사는 필라그린 결핍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이어지는 분자생물학적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팀은 각질 형성 세포를 배양해 만든 3차원 인공 피부(LSE: living skin equivalent)의 표피(epidermis)에서 필라그린을 제거,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피부와 흡사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어서 필라그린 결핍이 피부 단백질과 신호전달 경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염증, 세포 구조, 스트레스 반응, 피부 방어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들

과 신호전달 메커니즘의 변화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피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을 위해 연구팀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와 건강한 사람에게서 채취한 피부 샘플의 단백질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피부 샘플에서만 몇몇 피부 단백질들이 변형돼 있었으며 이는 인공 피부 모델에서 나타난 것과 일치했다고 레이놀즈 박사는 설명했다.

그 한 예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피부 샘플에서는 KLF7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 수치가 높았다. 이는 바로 필라그린 결핍된 인공 피부 모델에서 나타난 분자 변화 중 하나였다.

전체적인 연구결과는 필라그린 단백질 결핍으로 다른 단백질들과 신호전달 경로에 연쇄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고 레이놀즈 박사는 밝혔다.

이는 필라그린 결핍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원인만 제거하면 완치도 가능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현재 증상 완화 치료만이 가능하며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 학술지 '알레르기-임상 면역학 저널'(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뿔지마 비행’ 미군 우주선 2년 만에 귀환



존재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비밀에 싸인 미국의 군사 우주선 X-37B(사진)가 2년간의 우주 임무를 마치고 지난 7일 지구로 귀환했다.

미 공군의 무인 우주 왕복선 X37-B는 지난 2015년 5월 지구로 떠났으며 우주에서 718일 동안 '모종의 실험' 임무를 마친 뒤 이날 오전 7시47분(한국시간 오후 8시47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 센터에 도착했다.

길이 8.8m, 날개폭 4.5m, 무게 5t인 X-37B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했던 우주 왕복선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4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떠날 때는 로켓처럼 수직으로 발사돼 돌아올 때는 비행기처럼 수평으로 착륙하는,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이다.

역대 최장기의 우주 체류를 한 이번까지 포함, 2010년 이래 4차례 비행해 총 2085일을 우주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우주과학 매체 스페이스닷컴 등에 따르면, 미 공군은 X-37B가 재사용 가능 우주 왕복선 관련 기술 등을 시험하고 개발하려는 것 정도라면 밝힐 뿐

구 구체적 임무와 목적, 비용 등 대부분이 여전히 비밀이다.

평화적 우주 탐사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 '안전한 세계 기금'(SWF)은 "X-37B를 둘러싼 이러한 비밀주의는 이 우주선에서 첩보 관련 장비의 시험·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전문가 스티븐 에프터거는 북한, 중국, 중동 등을 겨냥한 새로운 기능의 첩보 위성일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적국 스파이 위성을 파괴·포획하거나 고장 내는 기술 또는 일종의 우주 폭격기 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 해군대학 우주정책 전문가 조앤 존슨-프리스는 이런 비밀주의가 가상 적국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CBS 방송은 보도했다.

그는 만약 중국이 X-37B 같은 프로그램에 운용한다면 미국 의회가 매일 청문회를 열고 대응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미군의 X-37B 관련 불투명성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제 연구진, 0.5m 거대 공룡알 주인 찾았다

1980년 말~1990년 초 중국 허난(河南)성에서 수천 개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됐다. 이중 큰 것은 장축길이 45cm, 무게 5kg 정도다.

이 커다란 알을 낳은 주인공의 정체는 비밀에 싸여있었는데, 최근 이 공룡이 새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신종 공룡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허난지질박물관과 캐나다 캘거리대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진은 공룡알 화석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했다.

이 공룡알 화석은 1993년께 지름 2~3m의 커다란 동지에서 6~8개가 두 층으로 쌓인 채 발견됐다. 약 9000만년 전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알로 추정됐지만, 정확히 어떤 공룡인지 공식 보고된 적은 없다.

미국으로 몰래 팔려나간 이 공룡알 화석은 2001년부터 10여 년간 인도네시아 폴리네시아박물관에서 전시됐다가 2013년 말 중국으로 반환된 뒤 연구가 진행됐다. 알 중 일부는 깨져있어 그 속에 있는 새끼의 뼈도 화석으로 남은 것을 볼 수 있다. 새끼 공룡의 몸길이는 총 38cm로 꽤 큰 편에 속한다.

연구진은 이 공룡의 생김새를 바탕으로 알의 주인이 '오비랍토르류'에 속하는 새로운 종이라고 결론짓고 공룡에 '베이베이롱 시넨시스'(Beibeilong sinensis)라는 이름을 붙였다. 성체 공룡의 뼈 화석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몸길이는 8m, 체중 3t의 크기로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룡 전문가 이윤남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 화석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1996년 5월호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며 "지금껏 어떤 공룡의 알인지는 불명확했는데, 이번 표본으로 이 알이 오비랍토르류 중 케어나그나티데(Caenagnathidae)에 속하는 공룡의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깨진 알 속에서 발견된 공룡의 뼈 화석.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미시카펫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제공되는 미시카펫에서 만나보세요!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서로를 타고 번지지 않는 실험 동영상 보기

*실제시공 현장 중책 옥천소방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터너디자이너 잔 멘디니와외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외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종로문화센터 옥상시공
시공사례

향원대학교/강원보건대학교/대전대학교/태백서보대학교
강원시립도서관/강원대학교/강원대학교/강원대학교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